



사료산업 대응방안

고곡가(高穀價)의 원인과 사료산업 대응방안

- 상당기간 원료가격의 상승세 지속 예상 -

1. 사료원료의 고가(高價) 시대 도래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오던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 또는 사료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식품산업 등 농산물 관련 산업에 공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번의 가격상승은 몇 년의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던 예전의 패턴과는 대별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향후 농산물 국제거래의 가격대(帶)를 한 단계 상승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활용되던 옥수수 등의 농산물이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부장

에탄올 제조용으로의 신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있다.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가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향후 옥수수 생산량의 20% 이상이 에탄올 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에탄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 문제는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상

당기간 고곡가(高穀價) 시대를 예견케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농업(옥수수 산업)의 침체기(옥수수 생산농가의 채산성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격이 배럴당 40~45\$ 정도면 에탄올연료가 경제적이라는 판단아래 에탄올 증산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외에도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 역시 에탄올 제조용도의 옥수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사료용도의 옥수수 수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일부 전문가그룹에서는 화석 원료와 비교할 때 농산물을 이용한 에탄올 제조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에탄올의 제조가 오히려 지구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사료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에탄올 문제는 상당기간 사료원료 수급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조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점이다. 과거 중국이 사료용 옥수수 등을 수출하였던 것은 옥수수 생산지대인 길림성을 비롯한 동북3성에서 중국의 남쪽지역까지 옥수수를 운반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남쪽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가까운 한국 등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료원료 수입시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견제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은 미국산 주도의 옥수수 국제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가격 상승요인이 위와 같다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야자박 등 열대식물성박류의 경우는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급조차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사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

(同) 원료들을 수입·사용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을 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요수출국인 동남아 국가들의 가공기술의 발달로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은 단순부산물 생산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으로 전환 생산되고 있다 또한 그나마 생산되는 사료원료들도 자국의 축산업발전으로 자국내에서 사료용으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호주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오히려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불균형도 작용하고 있다.

위의 요인들이 원료수급 사정에 따른 것인 반면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에 못지않게 국제 선박운임의 변화 역시 사료생산비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사료원료의 경우 해상운임이 포함된 국내항 도착도 기준가격(C&F)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있어 세계적인 선박운임료 상승은 사료의 생산비용 증가요인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제 해상운임 상승의 주요원인은 중국의 팔목할 만한 성장으로 세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선박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올림픽 개최준비에 따른 건설자재 등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표1. 해상운임 추이 (단위 : US\$/톤)

구분	GULF	PNW	GULF/PNW Spread
2007. 4 (A)	65.99	46.57	19.41
2006. 4 (B)	34.82	25.33	9.29
A/B (%)	89.5	83.9	



2. 원료 및 제품가격 동향

위와 같은 이유로 배합사료 업계는 산업형성 이후 유례없는 높은 원료가격 시대를 맞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은 가격상승세를 누그러뜨릴만한 호재가 없어 상당기간 원료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원료가격이 '06년도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35~60% 상승하였으며, 구매시점이 뒤로 갈수록 구매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표 2).

국내 배합사료 산업은 원료의 실질 수입의존도가 95%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 중 원재료비 비중을 85% 내외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에 있어서 기업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원료의 수입가격 상승폭 그대로가 사료의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됨을 뜻하는 것이다.

최근의 배합사료 가격변동 내용을 보면 '06년 1/4중 비육용사료에 대해 평균 3%내외의 인하조정이 있었는데 이는 생산비 변동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이후 광우병의 영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산 소고기개방 방침에 따

른 일회성 조치였다. '06년 1/4분기 중의 공식적인 가격인하는 비육우사료에 한정되었으나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여타 축종의 사료가격도

인하되었다. 그러나 연말에 들어 축종별로 4~6% 내외의 인상이 있었는데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폭등과 해상운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금년에 들어서도 가격을 인상한지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나 업체별로 2월말과 3월초에 걸쳐 평균 5.5%내외의 가격을 다시 인상·조정하였다.

문제는 향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이미 예견되는 바 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배합사료는 연이은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같은 원료수입국인 일본과 유사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일본의 예를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규정에 의거 매 분기마다 가격조정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06년 이후 가격조정은 지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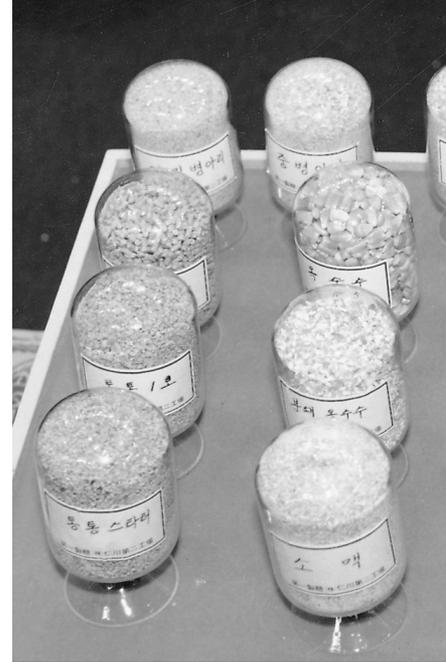


표2. 주요원료 가격동향

(단위 : US\$/톤)

구분	2005	2006 (A)	2007		증감율 (%)	
			1월 (B)	최근구매 가격 (C)	B/A	C/A
옥수수	140.1	143.6	180.7	222.4	125.8	154.9
소맥	142.9	140.2	188.2	210.0	134.2	149.8
대두박	249.3	229.5	238.1	281.8	103.7	122.8
소맥피	125.5	125.2	132.0	182.0	105.4	145.4



4/4분기 이후 내리 3분기('07. 2/4분기 인상계획 포함) 동안 총 30.4%의 사료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3. 대응방안

지금과 같은 고곡가(高穀價) 시대를 맞아 사료기업과 정부는 물론 양축농민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즉, 사료의 개념도 그 동안은 효율이 좋은 사료에서 이제는 경제성이 높은 사료 다시 말해 축산물 kg당 최저 생산비를 추구하는 사료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의 경우는 기존 배합사료나 조사료의 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하되 대체사료를 찾기 보다는 적정 사육밀도의 유지 등 양축과정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료기업의 자체적인 가격안정 노력과 정부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료기업은 사료원료의 지속적인 가격강세가 예견되는 만큼 현재 3~4개월 전의 구매에서 보다 장기(長期)적인 선도구매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옥수수·대두박으로 대변되는 사용원료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DDGS(에탄올생산 부산물), 완두콩 등 다양한 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미국 등 현재와 같은 소수의

수입국을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연해주 등에 대한 사료원료의 개발수입 참여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Silo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유통개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더 일층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료기업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정부의 관련시책도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료용근채류 중 일부품목과 수입콩(대두)과 같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적극적이고도 시급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료가격 안정차원에는 물론 이거니와 모든 축산물이 수입되고 관세의 완전철폐마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히 부적절한 규제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료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원료 구매자금의 대폭적인 확충과 금리(金利)인하와 사료제조업체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지원정책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국제 사료원료가격의 등락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 사료원료의 비축제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충격완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양계**